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4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 다 감사 드리세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차가운 대지에 온기를 주시고 마른 가지에 새싹을 돋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따스함과 새로운 시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무 차가운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왔고 무의미하고 굳어진 오랜 습관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 영혼의 겨울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새봄을 주십시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들 눈앞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십자가가 점점 또렷이 보이는 은혜를 주십시오. 상황과 주변을 탓하며 진리의 길을 애써 외면했던 우리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애끓는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계 곳곳의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의 뒤를 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요15:14-15 …… 인도자

♠ 교 독 문 …… 16. 시편63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이명희 집사 Ⅱ.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403. 나 위하여 십자가의 …… 다함께

성경봉독 …… 마26:6-13 …… 인도자
눅13:31-35 문인옥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마리아의 마음씨** …… 김재흥 목사
끝내 가야 할 길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56. 주와 같이 길가는 것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쁘게 화답하십시오. 받은 바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마음속 욕심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근심 가운데 제자리만 맴돌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가야할 길을 믿음과 용기로 걸어가는 구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복된 여정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3월 동호회 활동	성서의 평화(22)/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귐!	기도 : 문영혜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이호원 권사

3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고광송	이은옥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이인웅	윤주원	송양진	허정윤	정영선

▣ 밑/음/으/로/읽/는/글/

사랑과 분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서나 순간순간 사랑을 경험한다.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랑 가운데서 죽고, 사랑 속에 흡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의 경험은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은 개발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왜 사랑의 힘은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보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동물들도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소에게 싱싱한 풀을 준다면, 그 소는 당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올 것이다. 소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것에 보답한다. 그러나 이런 사랑 안에는 힘이 없다. 힘은 '공격적인' 사랑이 드러날 때만 생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힘의 근원이 된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어머니는 그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함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의 섬김에 보답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은 사랑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는 힘이 없다. 증오는 증오를 부른다. 사랑은 사랑을 키운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이는 마치 염소가 염소를 길러내고, 양이 양을 길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이 베푸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보답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이 그 응답으로 사랑을 불러낸다는 것은 사랑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만일 어떤 물체를 거울 앞에 놓는다면, 그 물체의 반영이 거울 안에 나타난다. 거울은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단순히 반영만을 비추어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되돌려줄 때,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그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랑의 힘은 우리가 증오에 직면해서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드러난다. 사랑의 힘은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큰 나라들은 서로를 두려워하며, 서로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증오에 직면하여 사랑을 실험하는 대신에 그 나라들은 그러한 일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의 힘을 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증오를 사랑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배워야만 하며, 사랑을 확신 있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는 인간의 마음에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자기 집에 앉아서도 온 세계에 불을 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은 자기 집에 앉아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비폭력의 힘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탐구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한쪽 편에 분노한 사람들 100명이 있고, 다른 편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 50명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나 50명의 사람들은 비폭력을 신봉하고 그들의 분노를 억제한다. 어떤 집단이 도덕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 나가서 전혀 분노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에 박애와 자비가 가득한 사람 다섯이 있다고 하자. 이 세 집단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다섯 사람은 수적으로는 작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만일 다른 모든 사람과 일체감을 느끼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다섯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체감을 가지고 분노를 극복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할수록, 그리고 그 규모가 더 작을수록, 그 힘은 더 강력해진다.

비폭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 과학의 시대에 예리한 무기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극히 부드러운 '사티아그라하(진리의 힘)'만이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우리의 평화군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수적으로도 많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군 병사가 지닌 태도의 순수성이다. 바로 이것이 평화군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비노바 바베, <<버리고, 행복하라>>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는 다시 일어서기 틀린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수군거린다 해도 저는 무릎꿇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커다란 불행을 당해
사람들은 제 목숨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쑥덕거리지만
저는 결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죽을 고비에 다다랐다 해도
제게는 아버지이신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당신을 알았고
저의 좋은 나날에 당신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겼기에
온통 어둠뿐인 이 순간에도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날의 동반자이신 당신 앞에 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지할 때는 그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했지만
당신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 인간은 한낱 들꽃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열두 번 변하는 칠면조이지만
당신만은 영원하십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만 의지하는 지혜로움으로
저의 나날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당신께만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김현옥)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권호천 배삼순 김윤수 김정길 최숙화 김훈동 백승민 유명숙
박홍엽 이인웅 이한림 김명희 이광용 형인순 한진실 박창운 허정윤
노용래 차혜심 오자영 김시영 권미숙 최종미 김영순

월정헌금:
고재중 김명순 김미순 김정애 김종철 고영애 송의섭 송임회 유증희
이재문 이갑재 이정은 이성범 전영자 정현창 조순덕 황경순 노미향
김 극

감사헌금:
장영숙 조항범 오현정 하재두 김순자 한진실 김춘려 권미숙 김현진
왕성환 강순배 오진훈 노순옥 최윤선 윤주원 길민수 한지혜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필순 김순복 윤수진 김시영 조항미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윤수 박상호 이봉옥 한상익 정영선 박창운 오미래 박성면
(누계: 41,4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차 혜 심	김 정 섭	노 봉 임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춘 희	정 복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최 희 영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백 묘 현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교 회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강 순 배	오 복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정 은	최 종 원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안 홍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박 혜 경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임 창 선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로 모입니다. 귀한 사귐의 시간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새벽기도회 :**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19일)부터 3주간 계속 됩니다.
3. **아름다운 원로 :** 3월 모임이 수요일(21일) 오전 10시30분에 있습니다.
4. **봉사 :** 종묘 앞 급식봉사가 22일(목) 오전 11시 15분부터 실시됩니다.
5. **웨슬리 설교 :** 3월 22일(목)부터 강독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전(10시 30분)과 저녁 시간(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6. **결혼 :** 박상규(안정숙 권사 아들)와 신연화의 결혼식이 24일(토) 오후 2시 30분, 용산에 있는 웨딩코리아에서 거행됩니다. 축하합니다.
7. **세례·입교 교육 :** 금번 부활절에 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 **주차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교회 마당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당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토요봉사(24일) : 박홍엽 이순정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김훈동 (결혼기념일) 김남홍 (할머니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